

한나라 당대표 도전 광주 출신 정두언 의원

“자만에 빠진 한나라, 혁신 나설 때”

광주 출신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당 대표 도전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하지만, 이 정부 출범 이후 뚜렷한 역할을 맡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 출마 선언은 그에게 정치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 1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치에서 나와 정두언의 정치를 하고 싶다”며 ‘홀로서기’를 선언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 의원을 만났다.



불편해 하는 사고교육과 전정을 했던 진정한 서민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것이 내 정치의 내용이다. 그동안 정치는 시대에 안 맞는 부분이 많았다. 통상적이었고 이것은 국민의 눈에 어색했고 위선으로 비춰졌다. 고객을 우선시하지 않는 공급자 위주의 정치였다. 당대표가 되면 당의 구태 의연한 허례허식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서열과 선수를 따지는 것도 없애겠다.

▲자만에 빠졌다. 대선승리에 안주했다. 대신의 믿음은 한나라당에 기대감을 보여준 것이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느라 급한 면도 있었지만 서민에 희망을 주지 못한 것이 컸다.

당·정·청 관계 재정립해 보수혁신 정책으로 전환

▲위기인 걸 모르고 있다가 선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데도 대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이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다행이 대선까지 2년 반이 남아있다. 다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 그래서 전대가 중요하다. 전대에서 대응체제가 나와야 한다. ‘그 나뭇잎이 그 밥’이 돼서는 안 된다.

▲대응책은 ▲변모를 일신해야 한다. 세대교체를 통해 스스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권위·부패·친부자 이미지를 강했다.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 것이다. 따라서 탈권위, 탈 부패, 탈 ‘부자 위주’를 해야 한다. 보수 혁신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다시 끌어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 시급하다. 세대교체는 연령교

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리더십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정두언식 리더십은 ▲핵심 측근이 당을 맡으면 당이 (청와대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정권에 대해 할 말을 해온 사람으로서 당·정·청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겠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 정권 재정출은 당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것은 아니다. 당이 보수 혁신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당·정·청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정두언식 리더십은 ▲한나라당은 중도세력과 젊은 층으로부터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즉 한나라당의 언어와 문화가 20세기형이라는 것이다. 나는 21세기형 언어·문화·리더십을 나를 갖고 있고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자유롭고, 젊고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음에 따라 당에 불만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 이번 전대에서 역할하길 바랐는데 안 돼서 안타깝다. /박지경기자 jkpark@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할 말이 없다. 구체적인 진전이 있으려면 호남 출신 지도자가 책임을 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두선(口頭禪)에 그친다.

▲호남 소외의 구체적 내용은 ▲인사가 만사다. 인사를 통해 다 이뤄진다.

‘호남소외’ 바로 잡으려면 호남 출신이 역할 맡아야

이 정부 들어 개선된 것 하나도 없다. 원인은 인사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결국, 호남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바로잡기가 힘들다.

▲대통령은 열심히 잘해왔다. 경제와 외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정치가 미흡한 것이 문제다. 그러나 시간이 있다. 전열을 정비해 다시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당연히 일들을 해서 대표가 되는 것이다. 시대적 흐름이 그렇다. 통상적 방식으로는 절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외형 앞세우고, 줄 세우고, 돈을 쓰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친서민적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전대를 치르면 의외의 결과 나올 것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음에 따라 당에 불만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 이번 전대에서 역할하길 바랐는데 안 돼서 안타깝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준영 전남지사, 상하이서 F1 홍보 중국을 방문중인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24일 뤼주산(呂祖善) 절 강성장을 만나 상호 우호증진과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박 지사는 이어 상하이로 이동,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전세계 관광상품 운영 MOU를 체결하고 현지 여행사와 언론인 40여명을 초청해 ‘F1 관광상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공공요금 상한제 도입·패스트트랙 연장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희망근로 일자리 8만개 창출

정부가 하반기에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포스트-희망근로’를 통해 일자리 8만4천개를 만들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일정기간 공공요금의 가격상한을 정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중기(中期)요금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연말에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경감 조치의 연장 여

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4일 안정 성장 기반 강화와 서민생활 개선에 중점을 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확정했다.

포스트-희망근로와 관련, 정부는 이달말 끝나는 희망근로의 잔여 예산 등 6700억원을 활용해 저소득층과 청년 미취업자 5만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3만4000명을 목표로 잡은 청년창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종료 예정이던 패스트트랙은 연말까지 시행한다. 연말에 종료되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시기도 연장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과 서비스 요금의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제조물가를 2~5년간 적용할 가격상한을 정하는 일종의 가격상한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8%에서 6%로 인하한다.혜택 대상은 2009년 기준으로 116만명, 연간 혜택 규모는 250억원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물기둥·섬광 못 보고 기름냄새 맡았다” 최문순 의원, 천안함 생존장병 진술서 공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생존 장병의 진술서와 사망자 사체검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 천안함진상조사특위 소속인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존장병 58명은 진술서에서 ‘물기둥·섬광·화염’은 보지 못했고, 기름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다”면서 “또 검안 보고서에는 ‘정황상 의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진술서에 따르면 생존 장병들은 “충격을이나 폭발음을 듣지 못했다”(오모 상사), “화염

새는 없으나 기름냄새는 많이 났다”(김모 상사), “섬광·화염·물기둥은 보지 못했다”(홍모 중사)고 말했다.

다만, 일부는 “북한 잠수정이나 반잠수정 소행으로 본다”(김모 상사), “어뢰 또는 기뢰”(김모 하사), “기뢰보다는 잠수함 어뢰”(강모 하사) 등으로 각각 사고 원인을 추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체 검안 보고서에서 “사망자 40명에 대해 X선 촬영 등의 방법으로 검안한 결과 파편·화상흔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열상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로호, 폭발 하기 직전 압력센서 등 ‘특이진동’

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발사체연구본부장은 24일 “나로호가 폭발하기 전 136초 구간에서 가속도계와 압력센서 등에서 특이 진동 값이 계속됐다”라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이날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사실을 러시아측에 통보했고 러시아측도 동의했다. 이런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되는 데 원인은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 ‘軍 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건의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는 24일 강원 춘천시 라데나리조트에서 2010년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충북도의회가 제출한 ‘군용비

행장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련 부처에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어떤 법률안이 되건 민간항공기 소음대책 이상의 수준으로 보상과 행정지원이 이뤄지길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My Miracle' (마이놀릭실) hair care products. The ad features a man's face and a product bottle. Text includes '제발 멈추기만 해도 마이놀릭실' and '마이놀릭실'.